

후지하라 토모에

2014년 4월 5일,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 충청북도의 한국국제협력단 회원 5명이 고후를 방문했어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어요.

이번 방문은 2010년 9월 25일 부터 3박 4일간 야마나시현 국제문화 교류회회원 10명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이었어요.

원래는 2011년 4월 고후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해 3월 11일 후쿠시마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겐코 축제에 맞춰 답방이 이루어졌어요.

한국 방문 때 저는 남편하고 함께 참가했어요. 그 기간 중 하루는 한국회원의 집에 홈스테이를 했어요. 한국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신세를 진 회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되어 매우 기뻐요.

한국 회원들은 4월 5일, 12시에 고후역에 도착했어요. 우리 회장과 부회장이 택시로 마중을 나갔어요. 곧바로 환영회장

호텔로 모셔왔어요. 그곳에서 한국어 명찰과 리본을 달고

오후 12시 50분부터 3시까지 환영회를 했어요.

사회자가 홈스테이 할 호스트 가정과 한국손님을 소개했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팀으로 나뉘어 테이블에 앉았어요.

호스트 가정 이외에 다른 회원들도 참석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회원들이 준비한 마술과

홀라덴스를 봤어요. 회원의 마술 실력은 프로급이었어요. 한국

민요와 트로트 [뽕짝] 음악에 맞춰서 비둘기와 지폐가 나왔어요.

모두 환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이 환영회의 폐회말을 제가 한국어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습했어요. 그렇지만 긴장해서 잘하지 못했어요.

그후 택시로 고후역에 있는 고슈 유메코지를 안내하고, 쇼핑을

하기도 했어요. 이 전 공부모임 때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한국말이 어설피서 진땀을 뺐어요.

막걸리 가게에서 한 잔 마신 사람도 있었어요.

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더니 젊고 예쁜 점원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회장과 잘 통해서 그녀가 한국 대학에 유학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했어요.

4 시 45 분부터 마이주루쵸 공원에서 신겐코축제를 봤어요.

너무 추워서 고생했어요.

한국 회원들은 축제의 규모가 크고 장엄함에 놀랐다고 해요.

축제를 끝까지 관람한 후, 모두 오쿠쿄 [奥京] 라는 레스토랑까지 걸어가서 늦은 저녁식사를 했어요. 모두 아주 배가 고파서, 메밀장국수, 도리모츠 [닭내장 요리] 튀김요리, 회, 디저트까지 전부 깨끗히 먹었어요.

오쿠쿄에서 우리 회원이 기모노를 입고 다케다부시 [전통무용] 를 춤췄어요. 또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부르자 한국회원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아주 따뜻한 분위기의 식사 모임이었어요.

밤 10 시가 넘어서 우리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한국의 여성 회원 한명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인터넷으로 메일을 하고 목욕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본요리를 만들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된장국이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디저트로 집에서 키운 키위를 냐더니 놀랐어요. 그 후 자두꽃이 하얗게 핀 뒷마당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의 차로 고후역까지 배웅했어요. 그날은 도쿄에 가서 스미다강 유람을 하고, 스카이트리를 구경한다고 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충실한 하루였어요.

報告 : YSGG 山梨通訳ボランティアネット韓国語 藤原友恵